

간호철학 정립 필요성에 관한 소고

최 남 희*

I. 문제의 제기

간호가 개인적인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나 그것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는 1989년 Nightingale의 저서 「Notes on Nursing」이 출판된 이후 부터이다. 간호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 간호행위는 자연발생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행위를 뒷받침할 정당한 근거가 요구되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간호내적인 자각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거나 간에 일관성있고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가진 「간호학」의 확립을 이루어야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Nightingale이 보다 나은 간호결과를 위하여 가능한 요인을 분류하고 작용범위를 서술하고자 했던 점에서 그녀를 단순한 간호수행자라기 보다는 간호학자로 보는 것이 옳다.¹⁾ 그이래로 다른 분과학문(개별과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간호학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여러 분야에서 간호학적인 지식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이론으로 구성되었다.^{2),3),4),5)}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는 간호학적 지식을 얻고 체계화하는 바로 그 자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연구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간호행위의 정당한 근거라 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1968년 Dickoff와 James는 Nagel, Hempel 등 과학철학자들의 실증주의적 이론모델을 통해 간호학 이론의 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⁶⁾ 당시 영미철학의 경험분석적·실증주의적 특색이 모든 학문분야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들의 입장이 실증주의적 과학방법론에 의해 간호학적 지식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의 철학적

배경이 무엇이었거나 간호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근거를 밝혀야할 것이냐를 생각케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후 간호학 이론구성을 위한 방법이 활발하게 모색되었으나 이론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방안이 Dickoff와 James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7),8),9),10)} 실제로 오늘날 간호학연구의 기본적 방향은 과학방법론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분야에서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도입이 그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거친것은 아니었다. 이점은 앞서 열거한 이론개발 방법들을 살펴볼 때 드러난다.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의 특성이 설명되고 그러한 방법적 특성이 어떻게 간호학적 지식을 구하는 데 합당한지에 대한 고찰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전의 과도기에 있는 학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볼 때 간호학은 자체의 특성이 실증적 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겨를이 없이 한가지의 경향에만 치우쳤던 감이 있다.

최근에 Oiler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절차를 기술하고 그것이 어떻게 간호학 연구에 합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¹¹⁾ 뿐만 아니라 Silva 등이 간호학 이론발전의 측면에서 과학철학의 변화경향을 분석하였고¹²⁾ Rogers 이론의 철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시도되었다.¹³⁾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간호학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탐구방법이나 지식을 얻고자 하는 내적 요구가 증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증대된 간호내적 요구는 인접학문과의 경계를 확정하고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이 새롭게 분석되고 그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근거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알기위한 활동을 시작한 이래 학문의 발전은 사실상 방법론적인 발전이었다. 이렇게 볼 때 간호학의 발전과정에서 방법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학적발전이 늦어지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있어서 방법상의 차이가 학문을 분과적으로 발전하게 하였고 그

* 서울간호전문대학·연세대학교 대학원·간호학과 박사과정

러한 논의의 근원이 철학적 사유라고 한다면 모든 분과학문은 철학의 기여가 없이 발전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철학이 분과학문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연구자의 학문적 경향에 중요한 관념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간호학분야에서는 철학과의 관련성을 깊이있게 다루지 않았다.¹¹⁾

1970년대 후반기부터 간호학연구와 이론개발에 있어서의 철학적 문제들을 밝히고자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14), 15)} 그러나 여전히 한가지의 방법적 원리에 보다 의존하고 있으며 간호학적 삶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더우기 간호학연구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철학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간호학내의 철학적인 제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시 과학이기 보다는 철학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간호과학철학이 우선 정립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겨진다. 따라서 본필자는 다음의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 삶의 획득과정—철학활동
- 간호학적 삶이란 무엇인가
- 과학으로서의 간호학과 철학의 관계
- 간호철학 정립의 필요성

그러나 본필자의 목적은 특수한 철학적 주제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간호학내의 철학문제를 다루는 독립된 영역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II. 학문발전과 철학활동

철학의 어원적 의미는 삶을 사랑하는 활동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삶이거나 간에 알기 위한 활동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철학자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특정 전문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목표도 같이 있어서는 있을지라도 모든사람들이 나름대로 철학적 사유활동을 하고 있다.¹⁶⁾

Russell에 의하면 철학은 인간생활의 필수품이다.¹⁷⁾ 전통적으로 철학은 종교적·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넓은 의미의 과학적 탐구 Radical Science로 이해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철학이 규명해내고자 했던(그리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문제(인간관련적인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질문의 핵심이며 궁극적인 것이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해결해야할 문제와의 계속되는 만남을 의미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철학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대개 학문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로써 존재하는 문제는 그것에 직면한 당자가 문제라는 것을 알 때에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은 사실 자체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추상화된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에 들어 오게 된다. 이때 사람은 자기가 부딪친 문제를 확실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삶의 출발이 된다. 여기에서 「문제의 인식」 그리고 그것의 확인과정에서 철학적 사유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삶의 활동은 처음부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조금씩 혹은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즉 새로운 지식의 축적을 이룩하고 학문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Russell이나 현대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집합이라는 것으로 철학을 파악하였다.¹⁸⁾ 그렇다면 세계를 통털어 기술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극단적으로 발달한다면 철학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과거 Aristoteles가 미해결의 문제를 진행되거나 이성의 사유활동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문제의 인식은 인식의 주제탐구방법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탐구대상·탐구주체·탐구방법에 해당되는 질문은 철학의 기본적 특성이다. 일단제의 해명은 그에 합당한 근거를 나타내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유사한 질문이 드러나는—질문의 제기와 해명의 과정은 인식의 방법·탐구방법·표현의 방법을 밝히려는 모든 시도를 철학으로 여겼으나 Galileo 이후 개별과학들이 독자적인 탐구영역을 정하고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발전해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과학이 실로 많은 것을 알아내고 보여주게 되었음에도 철학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의 발전에 따라 더욱 풍부해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개별과학이 분리해 나갈 때 마다 그에 평행하는 철학—예를 들어 사회학: 사회철학, 논리학: 논리철학 수학: 수리철학등—이 성립하여 철학자체를 풍성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해당과학의 문제확인, 탐구방법 및 대

1) 미국의 사례를 찾아서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간호학 교과과정에서 철학에 관련된 학점이나 강과·시간 수 및 간호철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문발전에 철학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감안한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상에 대한 분석 종합의 역할을 떠 맡아 지식의 축적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가능한 모든 과학이 철학에서 독립해 나갈 때도 그것이 남는 이유는 철학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⁶⁾ 즉 과학적 활동자체만으로 앞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식체계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더 이상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발전은 현재의 것에 대한 회의와 부정성을 통해 새로운 문제감각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철학사적으로 볼 때 철학은 현실의 인식과 설명을 위한 해석의 노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해석에 대한 비판활동의 연속이었다.¹⁷⁾ 기존의 해석이 절대가치라면 암기에 의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은 스스로의 사유활동을 통해 그 무엇을 구축하기 위해 비판하고 검토할 것을 권유한다.¹⁸⁾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삶속에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열린다.²⁰⁾ 철학의 가치 즉 학문에의 기여는 기존의 것에 대한 편견과 신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문제기 불확실성에 있다.¹⁷⁾ 철학의 목적이며 동시에 모든 분과학문의 목적인 진리에의 도달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탐구자는 분석적·평가적·사변적 활동을 수행하며 진리자체를 다루기도 하고, 진리를 담는 문장의 의미를 밝히기도 한다.

앎을 위한 형식적 방법 및 원리에 관한 문제는 분석적 활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진리대상과의 접근방식, 설명의 양식, 설명에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분석은 모든 학문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과학은 연구방법의 논리적 기초를 확보하고 해당분야의 일상 경험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²¹⁾

개별적으로 발견된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명제의 근거와 기반을 검토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은 철학의 평가적 기능이다. 이는 지식에 대한 확신·편견·근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적인 기만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탐구자의 사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경험적 관찰을 사용하건 순수하게 사유를 하건 간에 연구자가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점은 여러 철학자들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Bacon이 주장한 선입견배제라는 문제는 과학방법론의 객관성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의 것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권위에 대한 비판·부정이 새로운 앎의 세계에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¹⁸⁾

철학은 감각의 세계 즉 경험적 사실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사색하여 합리성과 체계성을 이룩할 수

있다. 분과학문이 경험적 자료에 바탕하여 발견하는 진리는 부분적이고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철학은 출발에 있어서 전제나 가정을 갖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전체로 접근하며, 개별적 진리의 관계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현상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별적 진리를 체계적·보편적 앎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성의 사유활동에 의해서이다.

지식체제로 이해되는 철학과 앎을 구하는 활동으로 파악되는 철학은 둘다 문제해결의 힘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길잡이이다. 이론과 방법론의 관계처럼 철학활동과 지식의 체계로서의 철학은 상호보완적이다. 기존사실의 부정(negation)에서 출발하는 철학은 지적탐구활동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문의 궁극적 대상인 진리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대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사실에 비추어서 옳은 것, 그리고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등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진리규명의 틀로서 「진리상응론(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진리정합론(Coherence Theory of Truth)」, 「실용적 진리론(Pragmatic Theory of Truth)」 등으로 구별된다.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상의 지식은 상기 분류의 어느 것엔가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어느 한가지에서만 속한다기보다는 공통된 요소를 함께 가지면서이다.

진리의 판별기준이 「상응론」을 따르게 되면 명제(Proposition)가 사실(Facts)과 맞아떨어지는 여부를 보는 것이다. 이때는 진술에 대해 참(True)과 거짓(False)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감각경험에 의한 사실과 관련되어서만 진리를 구별해내기 때문에 경험적 진리라고도 할 수 있다. 관찰명제들이 모여서 포괄적 진술체계를 구성하고 이 진술체계가 객관적 세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믿는 과학방법론의 진리관은 비교적 상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간호학 분야의 지식체계는 상응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론개발을 위한 전략들도 진리의 가치를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종합적 진술을 찾기위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방법상 어느 한 측면이 강조되어 있더라도 언어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 앎에 관해 말할 수 없다. 언어를 사용할 때 대두되는 문제는 논리적 관계이다. 이렇게 진술과 진술, 명제와 명제간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합당할 때 이때의 진술들은 정합론적으로 진리이다. 정합론적 진리는 사실의 경험과는 무관하게 이성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성의 활동에 의해서

는 사실과 비추어 불매처럼 진(True)과 위(False)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밝힌다. (Valid/Invalid). Leibniz가 이성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를 구별하고 전자를 필연적 진리, 후자를 우연적 진리라고 규정하고 분석을 통해 필연의 진리에 도달하는 이성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정합론적이다.²⁰⁾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Peirce 이래로 미국에서 발전한 실용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진리의 실용성(Pragmatics)이다. 실제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공해 주는 지식을 진리라고 한다. 문제해결에서 만족(Satisfaction)과 불만족(Dissatisfaction)이 판별의 중요한 요소이다.²⁰⁾ 정합적이건 상용론적이건 진리라고 판별되었다더라도 실제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족할 수 없다면 실용적 기준에 의해서는 진리일 수 없다. 실용성에 의한 진리는 실제적 결과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고 생활에서 안전을 제공하고 노력을 줄일 수 있게하는 것이 그만큼의 정도에서 참(Tru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명제의 진·위판별은 실제적 결과의 측정(Pragmatic Test)이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방법은 다양해진다. 그러나 어느 기준만을 채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특히 응용과학으로서 간호학은 마지막의 실용적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념의 사용과정에서 야기되는 논리적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하여 간호학적 진리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진리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대두되는 것이 앎에 관해서이다.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때에 가치가 있다. 안다는 것(I Know that P.)이 성립하기 위해서 P가 진리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그것(P)을 진리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근거는「P is true」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론구성에 있어서 근거의 제시는 진리발견과 똑 같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견의 과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증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P가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한 정당화(Justification)라고 할 때 이론이 행위수행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당화를 통해 남들로 하여금 진리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철학은 학문의 출발과 내용에 모두 관여되고 그것의 정립을 드러내는 지식체계형성에 관여한다.

Ⅲ. 철학과 과학의 관계

앎을 제공하는 방법은 상식·과학·철학·종교 등 다양하다. 또한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직접·간접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식의 엄밀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일상경험을 통한 사회환경에서 통용성을 가지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한다. 상식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상식적 앎은 검토나 확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반성적 앎이다. 따라서 시간·공간적으로 제한적인(상대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조시대의 환자간호를 위한 민간요법이 오늘날 과학을 기초로 하였을 때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과 London의 상식이 다르고 19C와 20C의 상식이 다르다.

종교(신학)도 궁극적 질문—인간·신·존재 등—에 대해 해명을 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종교적 해당역시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신학적 설명은—알장에서 밝혀진 바 진리를 위한 근거·신념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근거의 제시없이 신념만을 강요한다. 따라서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신학적 해명은 언제나 불명확한 채 남아있다.

이에 반해 철학과 과학은 확인·검토를 거쳐 보편적 진리를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지식은 체계를 이루어 전체가 서로 관련되고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한다. 그러나 과학과 철학은 분명히 다르고 방법적 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를 밝혀보는 것이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이 어떻게 철학적 문제와 직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람직하리라 본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식의 근거가 감각경험에 두었는가 이성의 사유활동에 의거하는가의 문제이다. 감각경험을 중요시 할 때 그에의 접근수단은 당연히 실험과 관찰이 되며 사유활동에 의존하는 지식은 합리성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과학은 「경험성」을 가정으로 하여 실험·관찰을 통한 자료를 이용,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의미의 일관성, 진술의 논리적 관계의 정합성을 밝혀서 체계화한다. 즉 이성의 사유활동을 통한 철학적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실험과 관찰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앎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언어로 개념화되어 논리적 관계를 가질 때 앎이 된다.

여기에서 논리관계 언어의 의미에 관한 문제는 감각을 기초수단으로 하는 과학이 다룰 수 없다. 즉 이는 과학활동 내의 철학적 활동인 것이다.

철학을 과학과 대비시킬 때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하거나 특수과학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과학적 활동이나 과학적 지식의 진술은 철학을 포함한다. 본래 과학이 근본과학(Radical Science)인 철학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C 후반의 과학적 혁명들이 과학과 철학의 분리가 촉진되었다. 특히 과학이나 철학이 다함께 문제해결적 지식을 추구하고 궁극적 앎을 찾고자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바탕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탐구의 방법이나 수단, 정당화의 근거가 다를 뿐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과학에서 노출되는 철학적 문제들을 보겠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학문에서 대상의 인식은 지식획득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인식의 문제는 형이상학상 이래로 가장 오래된 철학적 과제였다. 과학은 분리된 대상을 인식하고 파악할 뿐이지만 철학은 「대상의 인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인식하고자 한다. 객관적 방법으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과학은 인식의 가능한 한계와 객관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를 가져야만 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한계」나 「전제」를 밝히는 것은 과학의 인식방법이 아니라 철학의 일이다.²⁶⁾ 또한 인식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볼 때 과학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치중립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중립적 인식은 사물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보게 된다. 이러한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의 객관주의는 인식된 사실간의 관계, 사실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최초의 학문의 출발인 삶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표에서 볼 때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있는 것」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앎의 전부라면 「있는 것」은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간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전혀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철학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알아내고자 하므로 가치를 배제한 인식의 결과들이 어떤 맥락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철학자체의 알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개별과학의 문제에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볼 때 철학은 과학의 근본으로써 개별적인 과학을 보조하고 받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철학은 과학적 지식에 우선 한다.²⁷⁾ 논리적 방법들

사용하여 철학이 세계의 궁극적인 것을 밝히고자 하는데 비해 과학은 관찰방법으로 세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철학이 「관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지식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나 과학적 관찰은 논리적 수단을 쓰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28), 29)} 또한 인간의 감각세계가 한정되어 있는 한 경험적 관찰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은 자체의 특성상 점점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철학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인식의 범위를 초경험 세계까지 넓히고자하며 각각 개별적으로 정해진 개별과학의 성립근거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안다는 것의 출발이 의문과 회의(Skepticism)³⁰⁾라면 과학적 인식에 대한 철학의 의문은 과학이 자연현상을 새롭게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더욱 「보편성」에 가깝도록 축적되고 학문이 발전된다.

이상에서 볼 때 과학은 「사실」만을 다루나 철학활동은 이성활동을 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개념을 이끌어낸 기준(criteria)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추론의 근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파악한다. 과학이 사실만을 다룰 때 과학의 본질(혹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과 기준(criteria)인 것이다. 과학이 수행하는 실험과 관찰을 의미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의 구성 및 수정, 개념과 개념체계를 응호하거나 비판하는 철학활동에 의해서이다.³¹⁾ 또한 개념과 개념체계의 응호 및 비판은 분과학문의 영역과 근거를 규정하고 밝히게 되며 그들간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게 한다. 과학의 불가치성은 실험과 관찰에 입하는 당사자의 가치를 제거하도록 하며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반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반성이 불가능한 객관적 지식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의 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다.

개별과학이 세계의 한 단편만을 다루면서 사실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동안 철학(형이상학)은 전체로서의 실체에 관심을 갖는다. 실체에 대한 관심이 개별과학의 단편적 지식을 비판·검토하게 하고 그것들을 종합한 지식체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형성된 종합적 지식체제는 다시 분과학문에서 받아들여 새로운 문제 제기와 가설설정의 근거가 된다.³²⁾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제 가운데 하나는 관찰을 통한 설명이나 실험적 방법의 증명과정에서 어느 것을 설명으로 혹은 증명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이나 증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개념」의 문제에서 해당한다. 개념의 선택적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과학의 이러한 부분은 근원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다루지 않는 과학활동 한 가운데에서 철학적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다.²³⁾ 이렇게 볼 때 과학적 탐구과정에서 철학적 요소²³⁾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학은 훈련된 철학이기도 하다.

방법으로서의 철학(Philosophy as a method)은 앎을 얻기 위한 과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22), 26)} 그러한 철학적 작업의 결과로 대상이나 개념의 명확성(Clarity)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탐구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것이 현대 학문의 세계에서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법론」에 해당된다. 독자적 영역의 과학성립은 「대상」과 「찾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²³⁾

갈릴레오가 철학적 주제를 과학으로 변형시켜 물리학의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과학으로 하여금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의 임무이다. 과학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련되지 않은 상태의 철학적 요소들—새로운 질문, 그것의 명료성을 밝히는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한 방법 검토—이 과학 발전과정에서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

과학이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이 자연현상을 「꼭」같이 관찰할 수 없는 한 객관적·보편적인 과학적 지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편성의 확립을 위해 비판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적 가치판단은 철학의 특성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분과 학문의 근거와 영역을 확정하고 체계적 보편적 앎에 도달하게 한다. 철학적 작업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방법으로서의 철학—즉 개별과학의 방법적인 원리 근거등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을 살찌우고 발전하게 해주는 것은 과학자신의 활동이 아니라 과학적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해주는 철학의 활동인 것이다.

철학의 핵심적 주제는 탐구의 대상·주체·방법에 관한 이해이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에서 철학이 개별과학의 방법론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 실증철학자의 한 사람인 K. Popper는 과학자의 주된 기능을 「과학적 가설(conjecture)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⁴⁾ 과학적 가설은 문제·관념(Idea)·방법의 새로움을 포함하는데 이는 과학내의 「자명한 원리·방법」을 부정하여야 한다. 자명한 것의 부정은 곧 철학

적 회의이다. 철학이 과학에 공헌할 수 있는 첫번째는 바로 「자명한 과학원리」의 부정 즉 새로운 문제의 제기이다.

두번째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철학의 합리성이 과학의 전문가적 편견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 앎에 대한 확신이 앎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게 할 때 철학은 전체를 통해 부분을 봄으로써 그것의 제한성·부분성을 밝힐 수 있다.

또 하나의 철학이 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과학의 물가치적 이성과 가치판단으로서의 이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다. 가치를 배제한 실증적·객관적 연구는 연구결과인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까지 가치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킴으로써 탐구결과 즉 지식에 관해서까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식의 가치가 인간의 문제해결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관계적 맥락속에서 완전히 독립된 지식은 인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은 가치판단적 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과학자들 자신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의 엄밀성과 철저성을 위하여 그것을 뒷받침할 철학의 성립 즉 「~에 관한 철학」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IV. 간호학 연구에 있어서의 철학적 문제

지금까지 간호 철학(혹은 간호과학 철학)이 어떻게 과학으로서의 간호학과 관련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일반철학·진리 그리고 철학과 과학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진리탐구라는 말이 언제나 철학활동과 관련되어 있듯이 개별분과 학문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 함께 있어야 한다. 「~에 관한 철학」이 해당과학의 독특한 현실이해의 방안을 마련한다면^{22), 26)} 간호철학은 타학문과 구별되고, 또한 자체내의 분리된 지식들(예컨대 정신간호학·성인간호학·아동간호학 등의 지식)을 분석·평가·통합함으로써 간호과학의 탐구대상 일반을 보다 확실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인식하건 아니건 나름대로 철학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개별과학은 —간호과학에 있어서도—어떤 의미로진 철학을 포함한다. 간호학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밝

2) 탐구방법의 논리에 관한 문제나 사용된 언어의 의미부여, 그리고 관찰명제의 해명과정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하고자 하는 간호현상 일반에 관한 질문들은 근원적으로 철학적 문제에 해당된다.²⁷⁾ 이에 대한 답변은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²⁸⁾ 간호철학 분야에서 떠맡아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철학적 논쟁은 결과적으로 개별과학으로서 간호과학의 정립을 위한 독자적 작업분야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일반철학이 방법학·원리·변경설정·성립근거 등의 면에서 개별과학을 포함하듯이 간호철학은 간호과학을 포함하여 고유의 영역과 독특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간호학의 독자성이 개별적인 간호행위에 있다기 보다 독특한 지식체에 의존한다는 말은 분과학문으로서의 간호학에 대한 철학적 언명이다. 「간호학적 진리」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경험적으로 밝혀질 수 있지 않으며 간호학적 진리가 표현해내야 할 간호의 본성(nature)이 따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이 대답하기는 곤란한 문제이다. 일반철학이 진리의 대상 즉 궁극적 실체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와 그 대상을 알기 위한 인식론적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듯이 간호철학은 간호학적 탐구대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는 일을 떠맡을 수 있다. 「간호」를 밝히기 위한 정의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그것들은 모두 「행위」라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다.²⁹⁾ 거기에 표현된 행위의 개념안에는 간호상황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정신적·신체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즉 행위를 구성하거나 뒷받침할 「사랑」, 「동정」, 「감정이입」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1951년에 Peplau³⁰⁾가 간호를 정의하면서 포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³¹⁾ 그러나 그러한 정의가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의 적합성 여부도 논의할 수는 없다. 간호대상자의 건강이 응용과학으로서 간호학의 목표라면 그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간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다. 또한 「건강」이 목표인 인접학문과의 구별에 있어서도 간호의 본성이 분명해 진다면 그 유사성과 차이점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그러한 확인은 사실의 관찰이나 확인보다는 관찰자료를 사용한 개념에 의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념의 명

료화, 개념의 사용을 밝히는 것은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을 다루는 경험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개념을 주로 다루는 철학의 임무이다.

「간호」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새삼스럽기는 하나, 그러한 질문은 학문발전과정에서 언제나 제기될 수 있다. 그와같은 의문의 제기는 새로운 관점에서 간호학을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새로운 시각의 간호학에의 접근은 바로 그만큼 간호학의 영역을 확실히 해주고 간호를 보다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³²⁾

간호학적 탐구대상에 대한 간호철학적 질문은 간호학의 근거와 가정(Assumption)을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지식을 찾고, 축적할 수 있게 한다. 경험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은 연구주체 즉 간호학을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의 객관화된 현상만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적 지식이 가치를 갖게되는 것은 간호현상에서 드러난 사실의 파악이라기 보다는 간호의 본래적 특성에 합당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간호학적 진리는 무엇인가? 간호의 본성이 「행위」라고 한다면—지금까지의 정의를 종합할때—우리가 찾아내고 구성해야 할 진리는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간호학에서 진리로 받아들인 것은 「실천」에 관련되어 있다. 실제 간호영역에서 적용되어 본래의 간호목표 즉 간호대상자의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주어야 한다. 이런의미에서 볼 때 간호학의 진리기준은 실용적 진리관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관련된 인접분야—예를 들어 의학—에서 참이라고 인정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간호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간호학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³³⁾ 구체적인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획득이 개별상황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기왕의 결과들 가운데 상관관계가 높았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연탄가스중독 환자의 회복이 식초요법으로 촉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귀납논리에 의존하는 것이다. 귀납적 추리는 과학방법론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식초요법과 연탄가스중독 환자의 회

- 3) 과학의 선가정(Pre-assumption)과 경험성의 특성은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데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 4) 간호를 정의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to assist, to help, complex service, to serve, to maintain, to promote, to provide 등이다.
- 5) Peplau는 간호를 과정(a process), 관계(a relationship), 기능(a function), 힘(maturing force)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모두 엄밀히 따지자면 행위의 여러측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예를들어 Emile Durkheim이 사회현상을 다루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G.H. Mead는 사회학에서 취급해야 할 대상을 찾았다. 그러한 서로 상이한 관점이 탐구영역 및 지적세계를 넓혀 주었고 더 나아가서 사회학은 점점 독특한 지식체계를 갖게 되었다.

복이 인과 관계로 연결된 것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식초요법」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탐구과정상 상관관계가 높은 사실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토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간호학의 진리는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구체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경험적 사실들의 관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담은 진술이 간호현상에서 관찰된 사실과 맞아떨어질 때 상응론적으로 진(True)이 된다. 상응론적 진리관을 우선적으로 받아 들인다면 간호학에서 진리탐구방법은 귀납적 추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경험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간호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문제해결이 가능한 얇은 순수한 경험과학적 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다.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념을 사용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러한 문장들은 논리적 결합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간호학적 진리를 상응론이나, 정합론 혹은 실용성에 의한 진리 가운데 어느 한가지에 국한시킬 수 없다.

더욱이 간호학의 진술이 참이기 위해서는 같은 과학 집단안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옳다는 믿음이 진술을 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을 진리라고 믿게끔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진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합리적인 정당화(Justification) 과정을 거친 문장이 진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진술의 정당화는 순수히 경험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활동을 통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과학적 관찰로 얻어진 자료는 논리의 수단에 의거하지 않고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문장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True)일 수도 거짓(False)일 수도 없다. 진리의 진·위판별은 의미를 가진 문장에서만 가능하다.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이 경험적 관찰을 통해 보다 많은 개별적 사실을 알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앎인지의 자각을 갖도록 자기반성적 지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 자기반성적 앎은 개별적 지식의 관계를 살피고 전개의 논리를 밝혀서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는 간호철학의 순수한 사유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참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일반철학의 인식론적 논쟁은 이성의 활동에 의존하는 합리론과 감각경험에 기반을 두는 경험론의 두 줄기를 이루었다. 대체로 간호

학의 「알 수 있는 길」은 경험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해왔다. Dickoff와 James 이래의 간호학 이론구성을 위한 여러 저술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7), 8), 9), 10), 12)}

그러나 간호현상의 일부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이루어진 얇은 간호 현상전체를 포괄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²⁷⁾ 이러한 부분적 앎은 철학적 사유를 거쳐 그들의 관계나 근거가 검토됨으로써 간호학 일반에 관한 독특한 지식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간호의 본성—현재까지 이루어진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 있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증적 방법만이 간호학적 진리의 탐구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전제는 어느정도 무리가 있다. Stevens는 간호를 실제의 외연적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구성물로 파악하고자 한다.²⁷⁾ 이와 같이 간호를 정신적 구성물로 파악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간호학적 진리의 획득이 궁극적으로 간호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간호과학이 경험가능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할 때 간호철학은 그러한 인식이 과연 가능한가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간호철학적 노력은 다양한 지식탐구방법의 시도를 가능케 할 것이며 기존 간호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함으로써 보다 포괄적 지식체계의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철학의 문제는 언제나 보편적 앎에 있다. 따라서 간호학내의 개별적 앎들에 관한 평가·종합은 간호철학의 소관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철학의 순수한 사유기능 즉 경험적 객관성—가치의 배제—으로 부터 자유로운 이성활동을 통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적 앎이 귀납방법에 의해서 얻어지거나 연역 논리에 의해서 얻어지거나간에 이들 지식이 간호본성에 비추어 합당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합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이미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임에 반해 과학은 가치의 배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적 앎의 문제가 간호학과 타학문을 구별지을 수 있는 독자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독자적 지식은 다른 학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탐구영역 즉 간호의 본성에 따라야 한다. 독자적 탐구영역의 확인은 과학으로서의 분과 간호학이 아니라 「간호에 관한 철학」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

힌 바와 같이 과학이 사실만을 다룰 때 철학은 기준(criteria)를 가지고 개념을 사용하여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간호」라는 개념의 성립은 그것이 갖는 속성과 유사성을 한데 묶어 「간호가 아닌 것」과 구별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별은 「간호」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것 즉 「비 간호—다른 분과학문—」와의 관계속에서만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철학적 문제와 만나게 된다. 관찰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거를 탐함으로써 의미를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호학적 진리와 다른 분야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간호학적 진리자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탐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모아 개념체계를 확립하고 논리적 진술을 통해 진리를 전달하는 것 또한 철학의 중요한 일이다.²⁸⁾ 간호학적 개념의 구성 및 수정 그리고 개념과 개념체계에 대한 옹호와 비판활동은 간호과학이 수행한 실험과 관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근거있고 유효하게 해 줄 수 있다. 즉 이러한 옹호와 비판활동을 전개하는 간호철학적 탐구는 간호학적 지식이 인간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간호학과 비간호학의 구별기준을 밝혀줄 것이다. 간호학이 인접학문과 다른 어떤 것이라든 대상에 대한 파악이 달라야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과 형식이 타학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간호철학은 간호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의 오용을 제거함으로써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무의미성을 제거할 수 있다. 언어의 명료화와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는 곧 이해의 방법과 형식을 독특하게 해 주는 한가지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학에 대한 중요한 견해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이다. 간호학적 진리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간호학적 진리가 건강과 관련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간호행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간호행위자의 진리에 대한 판단은 그 자신을 실천적 행위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가 된다. 과학적 간호학은 실제(reality)를 객관화한 바탕위에서 과학적 분석의 영역을 갖는다. 그러한 간호학적 지식은 말하고 행동하는 주관적 대상과 만남으로써 경험적 지식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를 갖게 된다.²⁹⁾ 뿐만 아니라 상이한 과학에서 얻어진 지식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경험분석적 지식이 인과설명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조건적(혹은 제한적) 예측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은 경험성을 기본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점점 분과적으로 지식을 축적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성인기 간호, 아동기 간호, 노년기 간호 등 좀 더 엄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과학적 탐구정신과 함께 보다 제한적인 영역으로 분리되고 간호학은 점점 불가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객관성의 지적 배경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천이 중요한 특성인 간호학 분야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탐구자의 가치배치를 전제로 한 지식이 실천적 대상과 만나 실제 기능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철학에 있어서 가치이론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간호철학은 가치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가치이론의 분야를 포함한다. 객관적으로 얻어진 간호학적 지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간호행위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문제 즉 적용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간호학 탐구자의 불가치적 이성, 다시말해서 Harnas가 말한 기계적 이성을 실천적이성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간호과학이 세계의 한 단편만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호학의 궁극적 목표는 최대한의 간호학적 지식확장이며 그것을 통해 간호대상(인류)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분과적 지식의 조차들은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갖는다. 즉 간호대상의 확인과 간호학적 진리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을 통해 간호분과학문에서 받아들이는 종합적 지식체계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간호학은 실천적으로 독립적 분과학문 정립의 방안을 갖게 될 것이다.

철학자는 개별과학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모든 개별 과학자는 철학을 해야만 한다. 즉 철학자 일반은 개별 과학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지라도 개별과학자는 적어도 일정한 수준에서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해서 개별간호학—예컨대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호철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간호철학적 문제에 어느 정도로나마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간호철학이 간호과학에 대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만 하는 몇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간호철학은 개별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이 성립 가능한 근거·기준·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학 탐구의 주제와 탐구대상이 확인될 것이다.

둘째, 간호학의 형식과 방법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

는 분석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간호철학은 진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근거와 기반을 밝히고 반성함으로써 간호학적 진리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해야 한다.

넷째, 간호철학은 순수한 철학적 사유를 통해 개별 간호학적 지식을 간호학의 전체지(知)로 통합적 체계를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간호철학의 탐구활동은 간호와 비간호의 경계확정(demarcation)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학내의 지식체를 체계화함으로써 간호학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요약

비과학적이던 간호가 과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9C 중엽이다. 이때부터 형식화된 간호의 제도화가 시작되었고 간호실천이 형식적 개념들에 기초를 두면서 발전하게 되었다.⁸⁰⁾ 그러나 아직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간호계 내부의 불만은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학문의 깊이와 질적 성숙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간호철학 혹은 간호과학 철학의 성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철학자에서 찾거나 과학철학이 과학발전에 기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철학적 논쟁들은 개별분과 학문의 방법론적 원리를 제공해 왔으며 그러한 방법론적 원리의 적용이 과학적 발전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간호학이 체계적 학문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방법론적 논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한 논쟁을 포괄적으로 떠 맡을 수 있는 간호학 내의 비 분과적 분야가 존재해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 비 분과적 과학의 분야가 바로 간호철학의 분야이다.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은 그것만으로서의 간호학이 성립하게 되는 근거나 특성, 타학문과의 경계확정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논의는 당연히 순수한 사유기능과 비판을 특성으로 하는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간호철학은 일반철학과는 상당한 부분 다를 수 있으나 탐구의 특성상 일반철학이 수행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간호과학이 자체활동내에 포함하고 있는 여러 철학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학문적 발전의 기틀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간호철학은 간호의 독자적 분야를 경계짓기 위하여 간호대상·주체·방법에 관한 독특한 인식을 해

야할 것이다. 모든 과학은 특정한 관찰대상을 갖는다. 때로 이러한 대상은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의학과 간호학처럼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계확정이 애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계기준은 지식체의 독특성과 본성의 인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⁸⁰⁾ 이러한 요소들은 철학적 인식에 따라 구별이 가능할 것이다.

간호의 본질은 무엇이고, 간호학적 진리는 어떤 것인가? 본질에 대한 논의는 어느 분과학문에 있어서나 개별분과간에 특수한 대상영역을 확정짓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간호의 탐구대상이 분명해지며, 그 대상이 구체화된 연후에 간호학적 진리와 탐구방법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철학과 마찬가지로 간호철학은 경험성이 아닌 이성의 활동에 기초를 두는 합리적 학문이다. 진리탐구 활동으로서의 간호철학과 탐구활동결과로서 이루어진 지식체계로서의 간호철학은 둘 다 간호학 분야의 궁극적 목표인 문제해결을 가능케 할 이론의 구성을 이룩해 줄 수 있다. 궁극적 진리에의 도달은 반성적 사유의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적으로 발견된 단편적 현상에 관한 지식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탐구방법의 정당성과 진리의 타당성을 함입으로써 종합적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간호철학의 고유한 임무에 해당된다.

간호학의 독자성을 논의할 때 때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발견된 간호학적 진리를 어떻게 진술하는가이다. 진리라는 것은 개념을 사용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발견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전달함으로써 남을 이해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진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간호학이 다루는 진술들은 경험성에 바탕한 의미를 지닌 영역내에서 명료화한 개념들을 포함한 주장을 담아야 하며 그 주장들은 타당한 근거를 지녀야 한다. 간호철학은 단편적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함입함으로써 진리를 진리되게 할 수 있다.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하며, 그 의미의 일관성을 밝히고 원래의 의도를 설명하는 진술인가를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또한 철학적 문제에 해당된다. 현대 분석 철학이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 생겨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의미의 명료성이 지적작업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호철학은 간호행위의 표준·가치·목표·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가치는 인간의 경험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개인은 주관적으로 가치를 경험하게 되지만 가치

판단의 결정은 평가적이며 경험내에서의 객관적 관계를 갖게된다. 과학적 탐구는 원천적으로 가치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다.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 탐구결과에 관해 과학자체는 평가하거나 비판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과의 진리성 여부나 혹은 결과의 방향에 관해서도 또한 타당하게 검토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수집된 간호학적 진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해결에 가치를 갖게 되는가의 문제는 간호철학의 평가적 분야에서 떠 말아야 한다. 철학은 행동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비평가로서의 평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학이 철학으로 부터 분리되어 개별과학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개별과학에 병행하는 「~에 관한 철학」이 성립되어 과학발달을 지지해 주었다. 이는 철학이 과학발전에서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분야에서는 간호에 관한 철학의 활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뿐이어서 간호학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철학적 문제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이다.

예컨대 현재 간호학 이론구성 방법에 관한 여러 논문들은 주로 실증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증적 방법이 간호학적 진리탐구에 적합하다면 왜 그러한가에 관한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방법들이 실제로 과학적 방법인지를 반성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간호철학이 간호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나 암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기성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호학문의 것을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비판하고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즉 간호학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서만 비로소 그 독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간호철학은 간호문제를 계속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해답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점점 분과적으로 —즉 정신·아동·성인·노년간호학 등— 발견하고 발전하는 간호학적 지식을 종합하고 간호학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간호철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간호철학이 수행하는 비판·분석·사유적 기능은 간호학을 하나의 체계적 학문으로 정립시킬 것이며 간호의 탐구 대상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의 독특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철학의 특성을 살필으로써 간호철학의 성립근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철학은 끊임없는 탐구를 위한 사유활동에 의

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

둘째, 철학은 무엇이 철학적 문제인가에 대한 탐구방법의 획득을 의미하며 또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옳은가를 검토한다.¹³⁾

셋째,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깊이를 이해해야 하고, 자기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철학적 탐구는 기존지식의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진술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진술의 근거에 대해 따지는 것은 논리적인 권리이다.

참 고 문 헌

1. Nightingael, F., Notes on Nursing, 1989. London.
2. Peplau, H.H.,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G.P. Putnam's Sons, 1951.
3. Henderson, V., The Nature of Nursing, 1966, The Macmillan Co.
4. King, I.M., Toward A Theory For Nursing, 1971, John Wiley and Sons, Inc.
5. Rogers, M.E.,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Basis of Nursing, 1971, F.A. Davis Company.
6. Dickoff and James, A Theory of Theories; A Position Paper, Nursing Research, 1968(17)
7. Chinn, P.L., Jacobs, M.K., Theory and Nursing, A Systematic Approach, The CV Mosby Co., 1983.
8. Hardy, M.E., Theories; Components, Development, Evaluation, Nursing Research, 1974(23)
9. Jacox, A.,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An Overview, Nursing Research, 1974(23)
10. Walker, L.O., Avant, K.C.,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Appleton-Century-Crofts, 1983.
11. Oiler, C.,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1982(31)
12. Silva, et al., An Analysis of Changing Trends in Philosophies of Science on Nursing Theory Development and Testing, ANS, 1984, Jan.
- 13.
14. Feldman, H.R., Nursing Research in the 1980's: Issues and Implications, ANS, 3(1), 1980.
15. Greene, Judith A., Science, Nursing and Nursing Science: A conceptual Analysis, ANS, 2(1), 1979. oct.

- 16) Bochenski, 철학, 덕성여자대학 교양학부편, 인간과 사상, p. 38~49.
- 17) Russell, B.,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Touchston, Introduction,
18. 강성위, 「철학에 대한 비판의 역사로서의 철학사」, 현상과 인식, 1권 3호, 1977, 가을, pp. 67~74.
19. Russell, 양병택·정봉화 역, 철학의 제문제, 15장
20. Chisholm, R., Theory of Knowledge, Prentice-Hall, Inc, 5장.
21. Heidegger, 최동희 편역 철학이란 무엇인가. 삼성출판사.
22. Benton, T., 안상현역,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풀빛, 서문.
23. Sprague, E., What is Philosophy, Oxford Univ. Press, 1961, p. 3~29.
24. Popper, K.,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Science Editions, Inc, 1961, 2장.
25. Ayer, A.J., The Central Questions of Philosophy, Penguin Books, 1973, p. 1~4.
26. Winch, P.,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8. 1장.
27. Stevens, B., Nursing Theory,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1장.
28. Westphal, 양문흙·기종석역, 어떻게 철학을 할 것인가, 까치, 1장.
29. Harbermas, J., Tr. by John Viertel, Theory and Practice, 1974, p. 8~9.
- 30) Parse, R., Man-Living-Health, A Theory of Nursing, 1989. 서문.

=Abstract=

In Search of the Foundation of the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Choi, Nam-Hee*

For nursing as a science to establish a unique

system of knowledge, nursing researches should include philosophical activities such as critique, analysis and synthesis. As a consequence of these activities, nursing science comes to add up more abundant content of knowledge and have a more refined scientific system. In short, nursing science can be developed in respects of tools and methods through philosophical researches, i.e.,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Traditionally, the task of supplying individual science with pertaining methodological principles has been due to philosophy, or philosophy of each Scientific discipline.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establishes a demarcation between nursing and non-or pseudo-nursing, so that the unique nature of nursing can be revealed.

Systematizing the particular knowledges or informations discovered through empirical researches,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as a part of rational activities to construct its scientific theories.

Owing to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conceptual frameworks or theories settled in various branches of nursing science can be integrated into a holistic system.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can include arguments on standards, values, goals and intents of nursing behavior, so that their interrelational networks can be understood.

Philosophical discussions can offer nursing science positive ways to more extensive development, preventing it from indulging in particular or exclusive inclination. And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in itself should also keep a liberal attitude to overcome preconceptions concerning methodology of nursing science.

* Seoul Junior College of Nursing